

다산포럼

홍대용의 우정과 ‘이성적 대화’



임형택
성균관대 명예교수

담헌(澹軒) 홍대용(洪大容)은 연암 박지원과 함께 이용후생학파(利用厚生學派)로 분류되는 실학자이다. 그는 일찍이 우리 인류가 발을 딛고 사는 땅은 등글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설파했고 나아가서 우주무한론을 제창하였다. 이처럼 천문학에 조예가 깊은 과학자였는데 인간과 만물과 우주를 아울러 근원적으로 사고하여, 그의 학적 사유는 자연철학의 경지에 미치고 있었다.

연암과 마찬가지로 담헌 역시 외교사절단을 따라 중국을 다녀와서 ‘담헌연기’를 저술하여 ‘열하일기’와 나란히 연행록의 쌍벽을 이루고 있다. 그는 여행 중에 베이징의 유리장에서 우연히 항저우(杭州)의 세 학자를 만나 사귀어 깊어져서 친구가 되었다. 서로 주고

받은 대화를 필담집으로 정리하고 내왕한 편지들에는 ‘회우록’이란 이름을 붙였다.

연암은 이 ‘회우록’의 서문에서 굉장히 중요도 문제를 던진다. 조선의 담헌과 중국의 세 지식인은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는가? 지역만리 떨어져서 한 번 헤어지면 다시 만날 길도 없는데 말이다. 우리 조선을 돌아보면 신분 등급이 다른면 교유란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며 담파가 다르면 서로 알고도 사귀려 들지 않는 실정이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요컨대 ‘변거로운 예측을 파탈하고 까다로운 구속을 제거해서 진정을 토로하고 간담을 털어놓는’ 이런 태도야말로 인간과 인간을 격의 없이 가깝게 만드는 방도라고 말한다. 이혜타산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세 친구 중에 엄성(嚴誠)은 맨 처음 만난 사람이었다. 인품이 속되지 않고 지혜롭게 느껴져서 일견에 마음이 끌렸다. 엄성은 불행히도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엄성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주문조(朱文藻)라는 사람이 담헌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그 부음을 알려왔다. 이 편지는 10년이 걸려서 담헌 손에 들어온다. 청과 조선 간에 매년 외교

사절이 오고 갔음에도 인편에 전전하다 보니 그렇게 된 일이었다. 주문조는 엄성이 운명하는 장면을 눈앞에 보듯 그려낸다. 엄성은 병이 위중해진 그날 저녁에 담헌의 편지를 읽어 달라고 청하여 듣고 눈물을 흘리며 담헌에게 선물로 받았던 떡을 꺼내 묵향을 음미하다가 숨을 거뒀다. 편지와 떡은 그의 관 속에 함께 넣어 주었다고 한다. 한중의 지식인 사이의 우정이 얼마나 돈독하고 아름다웠던가를 실감케 한다. 그것은 상호 간에 학문과 지식의 교환으로 열린 것이지만 인간 본연의 심성이 통해서 각별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나는 담헌과 세 중국 지식인의 각별한 사람에서 ‘이성적 대화’란 개념을 도출해 보았다. 이제 막 열린 단계였지만 동아시아의 한·중·일 3국에 학술 교류가 자못 활발해지고, 하여 실학이란 신학풍이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이성적 대화를 과연 운용할 수 있을까? 19세기 말부터 20세기의 동아시아의 역사는 상호 적대적이며서 같도름 절절되어 있다. 다음 20세기 말에 세계 냉전 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21세기의 동아시아는 전과 다른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다. 최근

한반도의 상황이 남쪽에서 ‘촛불 혁명’의 진행에 연쇄적으로 북미 관계의 움직임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국이 한일 관계에 문제 제기를 하여 야기된 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심상치 않다. 한국인들 사이에 경제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이성적 대화를 거론하는 타이기에 관련 지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베 정권은 이 지점에서 왜 한국 때리를 계속하며 동아시아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일까? 관점에 따라 분석들이 백출하고 있는 바, 큰 논으로 보아 2019년의 동아시아 신국면에 대한 아베 정권의 대응 논리이다. 요는 촛불 혁명이 초래한 대세를 뒤집으려는 책략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성적 대화는 개별 인간의 주체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으로 구분 지어 말할 수 있다. 국가 이성은 존재할 수 있을까? 인류 역사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데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성 국가를 지향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우호와 평화는 가시적이지 않지만 그 방향이 상당한 진로임은 분명하다. 그 길로 매진하는 데 우리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국경·인종을 초월한 이성적 대화 가 필히 요망된다.

社說

바른미래당에 미래 없고 평화당에 평화 없다

총선은 다가오는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계속된 집안싸움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도·개혁을 표방하는 이른바 ‘제3지대 신당’ 출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혁신위원회 파편을 둘러싼 내분이 고스란히 최고위원회의로 옮겨가면서 당무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빚었다. 총 9인으로 구성된 바른미래당 최고위는 지난 24일부터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 네 명과 국민의당 출신 최고위원 한 명의 집단 불참으로 의결정족수(5명)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계파 갈등으로 최고위 의결 사항인 ‘총선기획단’ 출범도 무기한 연기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민주평화당 역시 집안싸움으로 ‘분당(分黨) 시계’가 더욱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평화당 최고위원회의는 정동영 대표와 박주현·허영·민영삼·서진희 최고위원 등 당권파 5명, 유성엽 원내대표와 최경환·양미강 최고위원 등 비당권파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당권

파는 정 대표의 일방적인 당 운영을 문제 삼으면서 지난달 17일부터 최고위에 불참하고 있다. 이에 정 대표가 ‘당무 거부’는 명백한 정계 사유’라며 선전포고를 날린 가운데 오는 31일 비당권파인 양미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비당권파는 징계 예고에 반발하며 정 대표 퇴진 촉구를 이어가는 한편 신당 창당 준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의 별도 세력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당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방문 행사도 보이콧했으며 내달 1-2일 별도의 추모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처럼 두 당 모두 당내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내년 총선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두 당에 대한 지지율은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기왕에 헤어질 거라면 빨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대로 가면 민심 또한 철저히 외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수영대회 이젠 레거시 사업에 공 들여야

엊그체 폐막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8개의 세계 신기록과 15개의 대회 신기록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김수지의 다이빙 역사상 첫 메달 획득으로 희망을 보았다. 광주를 찾은 해외 선수단에게 남도의 맛과 멋을 전할해 큰 감동을 주는 등 ‘문화 대회’로서도 빛이 났다. 또한 역대 국제 대회 중 가장 적은 예산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해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성공 개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레거시(Legacy·유산)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수영 열기를 이어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모처럼 개최된 국제 대회의 효과를 계속해서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레거시 사업이다. 광주시는 이미 지난해 용역을 통해 600억 원을 들여 아홉 가지 사업

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 규모의 수영장과 훈련 시설을 갖춘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이다. 수리 달이 아와 수영장과 광주 국제스포츠대회 기념관 조성도 추진된다. 아울러 전국 규모의 수영선수권대회와 동호인들을 위한 마스터즈수영대회를 창설하고 엘리트 수영 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생태계도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영의 대중화를 이끌어 ‘수영 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광주는 4년 전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이어 대형 국제 대회를 연거푸 앞차고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저비용’에 치중하다 보니 인프라나 시설 측면에서는 남은 것이 없다는 부담도 나온다. 따라서 성공 개최의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민의 자긍심이자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젠 레거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NGO칼럼

유기 동물 대란, 대안은 없는 것일까



조경
가치보듬 대표

“동물보호소조?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는데 못 키우겠으니 거기서 처리해 주나요?”

처리해 주느냐? 말아 주는지도 아니고 처리를 문의하는 뻔뻔한 전화. 광주 동물보호소에서 하루에도 이런 전화를 셀 수 없이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사는 지금, 시민의식은 아직도 동물 복지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버려지고 집을 잃는 반려동물이 매년 10만 마리, 하루 평균 약 300마리가 버려진다는 예이다.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육류 소비량 순위가 중국보다도 높은 세계 14위임에도 반려동물을 잔인하게 도축하고 개 식용이 묵인되는 우리나라

에서 동물 복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언벨런스하다.

오늘의 논점을 개 식용으로 끌고 갈 생각은 없지만, 유기 동물 발생의 근본 원인 중 개 식용을 뺄 수는 없다. 잡아먹어도 될 만큼 개가 여기저기 넘쳐나는 하찮은 동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일명 ‘개 농장’ 즉 생산·유통·판매업자들이 매년 10만 마리의 유기 동물 양산에 큰 몫을 차지한다. 수요 공급의 경제 논리로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게 잘못된 상거래는 아니지만 돈만 주면 누구나 먹지도 싸지도 짓지도 않는 인형 같은 강아지를 구입할 수 있고, 키우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목줄에 인식표 하나 달아 주지 않거나 대문을 열어 놓거나 목줄도 없이 산책을 다니다 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배변을 치우지 않는 몰염치와 최근 이슈인 ‘개 톨링’ 사고 또한 견주들의 의식 부족이다.

반려동물을 키울 소양과 여건이 결여된 사람들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누구나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지금의 실태. 동물 복지 문화가 채 정착하기도 전에 반려동

물 산업의 급성장에서 비롯된 사회적 부조화. 소위 ‘문화 지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자들의 무분별한 상업적 번식과 판매 그리고 그들을 부추기는 대중 매체, 쉽게 키우다 버리는 사람들이 지금의 유기 동물 대란의 주범이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없을까. 아주 간단하다. ‘법’(法)이 바로 그 해결점이다. 독일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브리더만이 모전 1마리당 평생 3회에 한해 번식을 허락한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나라들도 꽤 많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물 보호 문화 정착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강력한 동물 보호법 제정과 적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유기 동물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언제까지 뒷집만 지고 만장을 피울 생각인가. 정부가 동물 보호 운동을 생생한 중증의 마력으로 여기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이제는 동물들의 문제를 국민 40%의 반려동물 인구 즉, 민생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될 때이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반려동물을 누구나 판매하고 구매하고 버리고 학대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현실적인 법 제도와에 힘써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광주시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과’ 단위는 연감생심 ‘계’ 단위의 동물 전담 부서 하나가 없다. 시행된 지 이미 5년이 넘어가는 ‘동물 등록제’의 광주 등록률은 지난해 기준 10%대인 것을 보면 광주시가 동물 문제를 얼마나 가버려 여기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광주 150만 인구 중에 무려 40만 명이 17만 가구에서 25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계’ 단위의 작은 부서도 없으니 저조한 등록률은 당연한 결과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심각한 유기 동물 문제를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이런 여름 휴가철에는 또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들이 길에 버려질지 걱정이다. 인간들의 이기로 인해 이 땅에 버려져 죽어가는 생명들이 없는 날이 오기를 염원한다.

기고

‘청년 몰’ 지원 강화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세규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전통시장이 쇠퇴일로로 걷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약 2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몰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은 눈에 띄는 정부 정책 중 하나다. 청년 몰이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창업 지원 사업인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 사업’을 기반으로 시작된 청년 상인 육성을 위한 정책이다. 변화가 절실한 전통시장의 공간 활용 및 운영 체계를 개편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개척하기 위한 청년 정책인 것이다.

전통시장이 다시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청년 상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의 성공 사례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소벤처

기업부에 따르면 2016년 청년 몰 창업 현황은 22개 전통시장에 209개 점포가 문을 열었으나 24%인 65개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다. 더욱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점포가 청년 몰 지원 기간이 완료된 직후 휴·폐업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2017년에는 청년 몰 조성 사업으로 지정된 12개 전통시장 248개 점포 중에서 단지 6개 점포만 개장한 바 있다. 청년 몰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사실 전통시장에서 청년 상인들이 제대로 정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기존 상인들과 비교해 볼 때 경험과 재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판로 개척과 단골 손님 확보에도 한계가 있으며 수익 모델도 부재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경영 관리 능력과 법률적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부분의 청년은 창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열정만으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만한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

에서 청년 몰 조성 사업의 위탁 집행 기관인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과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례로 청년 몰 조성 사업에서 청년들의 자부담은 10% 정도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청년들의 책임감이 낮아지고 상업 운영에 필요한 끈기와 인내를 쌓는데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청년 몰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년 상인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들이 다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창업 지원과 교육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경영 단계까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창업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창업 교육은 아이템, 상권 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집중돼 있다. 이 같은 지원은 초기 단계에는 유용한 편이지만,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운영 단계에서는 경험과 인맥이 부족한 청년 상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보조금 중심의 정부 정책이 청년들의 자생력과 책임감을 저하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 몰에 대한 창업 지원 정책과 지

원 체계가 운영 단계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에 적합한 창업 지원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청년 창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업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창업 교육과 행정·재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場)이기 때문이다. 수익 창출에 필요한 경영 관리 프로그램인 회계 자문과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 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도 있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청년 몰의 운영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청년들이 자생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이 없는 청년 상인들의 무임 승차를 배제하고, 청년 상인들의 실질적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감독 기능을 보다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통시장은 지역과 발전의 궤(軌)를 함께 해왔다. 전통시장의 성공적인 재도약은 새로운 주역인 젊은 상인의 육성에 달려 있다. 청년 상인의 경쟁력을 높이기도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영화관 입장통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지금까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모두 24편(한국 영화 18편, 외국 영화 6편)이다. 2003년 12월 개봉한 ‘실미도’(감독 강우석)가 처음으로 관객 1000만 명을 기록한 후 매년 1-2편씩 ‘천만 영화’가 탄생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관객(1761만3682명)이 든 영화는 2014년 7월 개봉한 ‘명량’(감독 김한민)이다.

올해도 1월 개봉한 ‘극한직업’(감독 이

환의 미래로 ‘독립영화’와 ‘영화의 다양성’에서 찾았다고 말했다. “돈(수익)을 목적으로 영화를 만들면 관객도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자연히 독립영화가 돌파구 역할을 할 겁니다.”

대중들의 문화 예술 향유는 영화에 유독 편중돼 있다. 2018년 문화관광체육부의 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분야별 문화 예술 행사 관람률은 영화(75.8%), 대중음악·연예(21.1%), 미술 전시회(15.3%), 연극(14.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관람 횟수는 영화가 평균 4회로 가장 많았지만 대중음악·미술 전시·연극은 0.3회, 전통예술·뮤지컬은 0.2회, 무용은 0.03회에 불과했다.

올해는 한국영화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올 여름에도 한글 창제 과정을 다룬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 등 많은 영화가 대중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역사와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루는 한국영화 관람뿐만 아니라 연극과 미술 전시 등 폭넓은 문화 예술 향유 활동이 절실하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한국영화의 명암

벤저스·엔드게임’(감독 안소나·조루소)이 각각 1626만여 명과 1391만여 명을 동원했고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감독 봉준호)도 1004만 명(28일 현재)이 관람했다.

하지만 ‘천만 한국영화’의 뒷면에는 그림자가 있다. ‘잘 만든’ 독립·예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상영관을 잡지 못하거나, 설혹 개봉했다라도 대중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경우이다. 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추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장호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영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체 육 부 220-0633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